

사회

다문화가정 독자들이 보는 광주일보

“한국을 배우는 교과서이자 친구”

“다문화가정 독자에게 광주일보는 알짜배기 정보와 소식을 전해주는 중요한 친구입니다.”

창사 59주년을 맞은 광주일보가 다문화가정의 독자들에게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배우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일보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다문화가정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보도로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융화에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일 다문화가정 주부로 광주일보 독자인 필리핀 출신 아넬리(Annely·40)씨와 중국에서 온 톡보 민순희(35)씨, 취리메이(曲麗梅·38)씨 등 3명은 본보 창사 59주년을 기념해 애정 어린 평가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생활이 올해로 만 10년째지만 한국어 쓰기에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아넬리씨는 “광주일보는 가장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광주일보를 통해 평소에는 잘 몰랐던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

초등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를 둔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과 같은 다문화가정 2세를 소재로 한 본보 기획 시리즈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2010년)를 인상 깊게 읽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기사에 유독 눈길이 모아진다는 아넬리씨는 “가급적이면 다문화가정의 밝고 즐거운 소식을 자주 다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순희씨는 한국의 여느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건강에 관심이 많아 광주일보에 실린 관련 기사를 꼼꼼히 챙겨 본다. 딸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데다 아들 역시

초교 입학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광주일보에는 수학능력 시험 등 주요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한 교육 기사가 많은데, 초등교육에 대해서도 자주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민들의 소식을 다루는 광주일보의 ‘People&Life’면에는 소소하더라도 광주·전남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나 관련 행사가 자주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을 보였다.

올해로 한국생활이 3년째라서 아직 낯선 문화가 많다는 취리메이씨는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광주일보를 읽고 있다.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이 있어서 외출이 쉽지 않은 그녀에게 광주일보는 지역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는 창구다.

취리메이씨는 다만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기사는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가끔 사회면에 등장하는 외국인 범죄 기사를 볼 때면 시민들이 모든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 독자들은 광주일보를 통해 시청이나 각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다문화가정 행사 소식을 가급적 많이 접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자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소망도 밝혔다.

취리메이씨는 “(이전처럼)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일반 가정이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획 기사를 계속 보고 싶다”며 말을 끝맺었다. 한편 취리메이씨 가족 등 이들 다문화 세 가정은 김수관 조선대 치대 학장의 지원으로 올 초부터 무료로 광주일보를 받아보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다문화가정 광주일보 독자인 중국 출신 톡보 민순희(왼쪽)씨와 취리메이(가운데)씨, 필리핀에서 온 아넬리(Annely)씨가 양동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광주일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침 (8296) 김장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전남대 교수 3억 뜯겨

서울 중랑경찰은 농협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으로 3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인출책임 중국인 손모(33)씨를 구속하고 인출책임 통장 수집책 2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8일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을 연결해 좀더 신고하라.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통장으로 입금하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속여 10명에게서 3억 9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전남대 교수 A(여·56)씨는 이들에게 속아 자신의 돈 2억원에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익산시장 시장직 유지 향소심서 벌금 90만원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익산대와 전북대의 통합 과정에서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향소심에서 이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외국인을 욕하면 알아들더라”

○택시기사와 말싸움을 하던 외국인 영어강사가 ‘바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폭행 혐의로 경찰서행.

○1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 대학 영어강사 M(42·영국)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께 택시기사 양모(43)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M씨는 이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강의를 하러 가던 중 다른 여성과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지켜보던 양씨가 끼어들어 “바보같다”라고 하자 화가 나 몸싸움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한국어는 많이 몰라도 욕은 알아들더라”고 진술.

/양승현기자 yang@kwangju.co.kr

70대 실종... 용의자는 자살

어제 광주 광산구서

광주에서 70대 노인이 닷새째 실종된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1시에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A(여·78)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할머니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B(61)씨와 자주 다녔다”는 주민들의 진술과 실종 당일 B씨가 A할머니의 집 인근에서 배회

하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보,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마을 인근 수로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집에서는 “경찰이 나를 범인으로 몰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A할머니와 B씨가 평소 사이가 좋았던 점으로 미뤄 B씨가 A할머니를 살해·유기한 뒤 경찰의 수사가 염려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낮 농협서 방화위험 2700만원 강탈 은행강도 시민들이 맨손으로 잡았다

광산구 명화동

광주 한 농협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덤프터 운전기사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함평에 사는 김모(39)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명화동의 한 농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 20ℓ를 객장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사진〉 휘발유는 객장은 물론 창구 안까지 점점 퍼져갔다. 김씨는 20kg짜리 빈 쌀 포대를 농협 직원들에게 던져주며 돈을 담은 것을 요구했다. 현금 2700만원을 건네받은 김씨가 농협 쪽문을 통해 달아나자 직원들은 “강도야, 잡아라”라고 외쳤다.

때마침 이들은 농협에서 직선



거리로 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임모(30)씨 등 3명은 다급한 농협 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김씨를 뒤쫓았다. 임씨 등은 범인을 50m 가량 추격했고, 결국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덤프트럭 할 부금 상환일이 곧 다가오는데, 갚을 길이 없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검은색 SM5’ 주의보 2인조 차치기 광주 등 활개

최근 밤늦은 시각 검은색 SM5 승용차를 탄 2인조 차치기범이 광주와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20여건의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0시55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4가에

서 검은색 SM5 ‘26루8003’ 승용차를 탄 2인조가 김모(33)씨의 핸드백을 낚아채 사라졌다. 이 검은색 SM5 승용차는 10~13일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영등포·강남·혜화·동대문·중랑경찰서 담당 지역 등에도 잇따라 나타났다. 주로 귀가 중인 여성이 이들의 표적이 됐으며 10일부터 나흘 사이에 모두 10명이 가방을 빼앗겼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전 경찰서에 이들의 검거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Hinomaki' (편백나무) featuring a forest scene, a building, and various product listings like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and '친환경 제품'.